제3강 소피스트들의 정체

(1교시)

▶ 만남과 이야기

퀴레네 출신의 수학자, 소크라테스보다 10살 정도 연하로서 플라톤과 테아이테토스를 가르치기도 했던 테오도로스가 대화를 연다.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 테아이테토스와 함께 인식론적 문제들을 논했던 그는 "내일 여기에서 보자"는 소크라테스와의 약속을 지켜 다시 이들을 만난다. 그러나 이 날 테오도로스는 한 사람의 이방인을 동반하고서 나타난다.

테오도로스: 소크라테스님, 어제 약속한 데로 이렇게 다시 모였네요. 그런데 제가 손님 한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엘레아 출신이신데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의 제자들 중 한분이십니다. 정말이지 지혜를 사랑하시는 분[철학자]이죠.

소크라테스: 테오도로스, 그러니까 선생은, 호메로스 말마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이 아니라 神을 모시고 온 모양이구려. 호메로스가 그러지 않았소이까. 많은 神들이 그들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 보지만, 특히 이방인들/나그네들의 神은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사람들)이 과연 함부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절도 있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본다고 말이오. 아마 당신을 따라온 이 분도 그런 고귀한 존재들 중 한 분이시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또 엉뚱하게 갈 경우 지적해 주실 것 같구려. 하니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신성한 논박자이신 것 같소이다.

테오도로스: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건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지요. 이 분은 논박을 일삼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神은 물론 아니지만 정말 神 같은 분이시죠. 지혜를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 神과도 같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바실레우스 관아(官衙) 앞에서의 에우튀프론과 소크라테스의 만남, 임박(臨迫)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소크라테스와 그의 죽마고우인 크리톤의 만남, 독배를 들이키던 소크라테스를 지켜본 파이돈과 퓌타고라스 학파 사람인 에케크라테스의 만남, … 대화편들은 이런 만남들, 만남이라는 사건들에서 시작된다. 만남이라는 사건은 모든 일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모든 사건들은 관계를 통해 발생한다. 관계가 없는, 타자성이 일체 배제되는 곳에서 사건은 없다. 만남을 통해, 특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만남은 타자들의 얽힘을 가져온다. 타자들의 만남은 각각의 동일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헤어질 때 타자들은 만남의 장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자기를 가지고 간다. 만남은 그곳에서 동일성이 타자화되고 새로운 동일성이 형성되는 사건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정보, 기억, 언어, 경향, 감정, … 등의 교착(交錯)을 가져온다. 때문에 창조적 대화는 반드시 이질성을 전제한다. 낯섦, 부딪침, 갈등, 교환, … 등은 창조적 대화의 필수적인 요건들이다.

www.artnstudy.com

이 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은 당혹스러운 특성을 보여준다. 현실과는 매우 다른, 매끄럽게 내부화된 대화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화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코드를 공유한 사람들의 만남을 다룬다. '이방인'이 등장하는 『소피스테스』편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는 어떤 이질감, 낯섦, 부딪침, 오해, 갈라짐, …도 존재하지 않는다.

(2교시)

대화편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소통 가능성, 코드의 동질성 위에 입각해 있다.

* 들뢰즈와 가타리가 그리스의 사유를 '친구들'의 사유로 규정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철학에서 등장하는 친구는 어떤 외부적 인물, 하나의 예 또는 경험적인 상황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는 사유에 내부적인 현존, 사유 자체의 가능성의 조건, 생생한 범주, 선험적으로 체험되는 존재이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등과 소크라테스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 트라쉬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치열한 논쟁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화편들은 대개 '화기애매(和氣曖昧)'한 분위기가 넘쳐난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에는 현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 타자성의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이것은 다른 고대 문화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대의 문화들은 대부분 일정한 코드의 지평 위에서 이루어진 문화들이다. 그런 코드들 중 하나를 선택해 믿으면 종교가 되고, 코드들 바깥에서 그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사유하면 철학이 된다) 물론 그리스인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는 '야만인들'을 알고 있었고, 중국인들도 동서남북의 '오랑캐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그들과 대등한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타자가 아니었다. 이런 한계를 우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한계 내에서 본다면, 대화편들은 이질성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 테오도로스나 테아이테토스, 티마이오스 같은 과학자들, 아가톤, 알키비아데스, 디오티마(가상의 인물로 추측됨), 호메로스(인용되는 한에서) 같은 예술가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같은 소피스트들, 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 같은 평범한 인간들, … 등이 모이는 장소를 보여준다. 그 장소에서 수많은 지식들, 판단들, 태도들, 성격들, 말솜씨들, … 등이 집결된다. 이 모든 것들이 플라톤의 재구성에 의해 일정한 논변들로 조직된다. 이 점에서 대화편들은 종합의 장소들이다. 그 종합은 드라마의 형식을 띰으로써 그만큼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종합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등에게서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들의 논의 전개의 고리들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끼워 넣어진다. 현대의 저작들에서 이전의 철학자들은 각주의 자리들을 차지한다. 그러나 플라톤 대화편에서 철학자들은, 비록 플라톤이 재구성한 틀 내에서이지만, 각자의 목소리들을 내면서 생생하게 현존한다. 이것이 대화편들이 유니크한 맛을 띠는 이유이다.

www.artnstudy.com

테오도로스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도 神들의 선물이라고 할 만한 인물을 동반하고 나타난다. 이방인의 출현은 낯섦의 출현이다. 그러나 이방인은 플라톤의 지적 스승인 파르메니데스 학파 사람이다. '친구들'의 지평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방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첫대목에서 소크라테스는 호메로스를 인용하면서 일단 이방인을 경계하는 언사를 발한다. 그가 '신성한 논박자'가 아닌지를 물은 것이다. 이 표현은 외경심과 경계심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 이방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신성한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짓궂은 신들처럼 자신들의 허물을 지켜볼지도 모른다. 신성함에 대한 외경심. 논박자에 대한 경계심. 우리는 뒤에서 소피스트들이 '논박을 일삼는 자들'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엘레아의 이방인이 소피스트의 부류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신성한 소피스트가 가능한가?)
테오도로스는 짓궂은 신들처럼 행동하는 것, 논박을 일삼는 것은 '손님의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지적은 '테오도로스의 방식'(『테아이테토스』 145C)을 연상시킨다. 진지한 방식,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다. 테오도로스 역시 이방인, 즉 퀴레네 사람이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수학을 연구했고 테아이테토스를 키워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친교를 맺었다. 테오도로스가 손님의 방식은 논박자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엘레아의 손님에게 자신의 경우를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엘레아의 손님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테오도로스의 태도는 호의적(好意的)이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소크라테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려. 하나 그런 분들을 알아보는 것은 신들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소이다. 그런 분들은 "여러 폴리스들을 돌아다니면서" 높은 견지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기 마련이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철학자들이 아니겠소.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변화무쌍한 존재들로 보이는 모양이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존재들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존재들로 말이오. 그래서 이들은 어떨 때는 정치가로, 어떨 때는 소피스트로 보이고, 심지어 어떨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손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소이다. 손님의 고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르는지 말이오.

소크라테스의 이 물음에는 앞으로 이 대화편을 이끌어갈 여러 주제들이 복선으로서 깔려 있다.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외관(外觀)을 띠고서 나타난다. 그들은 곳곳을 돌아다니고, 또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본다. 즉 철학자들은 현실 속에 명시적으로 또 정주적(定住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며, 또 일정하게 평가하지도 못한다. 이들의 이런 특성은 사람들의 알아-봄(再認)을 비켜가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소피스트로, 때로 정치가로, 때로 미친 사람으로까지 평가된다.(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에게서 광기[이 경우는 매혹적인 광기]를 읽어내지 않았던가. 『향연』 215B-D) 결국 철학자들의 이미지와 실상은 다르다. 사람들은 이미지들에 현혹되어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미지와 실상이 구분되지 못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외관상 비슷한 존재로 인식되는)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는 진정 어떻게 다른가?(3부작의 주제) 외관상 구분되지 않는(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를 비롯해 단순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을 동일시하지 않았던가)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구분이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어려운 문제를 엘레아에서 온 손님에게 건넨다. 문제는 테오도로스를 거쳐

www.artnstudy.com

엘레아의 손님에게 자연스럽게 이전된다.

테오도로스: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 말이오.
테오도로스: 그들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 이들을 하나로 묶어 봤는지, 아니면 두 부류로 나누어 봤는지, 아니면 각각의 이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어 봤는지 말이오.
테오도로스: 제 생각에는 이 손님께서 그 문제에 기꺼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손님: 물론입니다, 테오도로스님. 기꺼이 답변 드리죠. 게다가 [제 고장에서는] 그들을 세 부류로 보았음을 기꺼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세 부류가 각각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소한 일도 아니고 또 쉬운 일도 아닌 듯합니다.

(3교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가 과연 한 부류에 포함되는 세 하위 부류들인지, 아니면 셋 중 둘은 하나로 묶이고 나머지 하나만 구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셋 각각이 구분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상위 부류에 묶이는 하위 부류들은 공통의 기반 위에서 차이를 내포한다. 그것들은 넓게 보아 하나이고 좁게 보아 여럿이다. 공통의 기반, 즉 그것들을 감싸는 상위 부류를 가지지 않는 부류들은 단적으로 분리된, 불연속으로 단절된 부류들을 형성한다. 각 부류들은 내부화될 수 없다. 다자(多者)가 일자(一者)에 정합적으로 귀속될 때, 특히 여러 층위에 걸쳐 위계적으로 귀속될 때 조화로운 내부화가 성립한다.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깥이 없다. (들뢰즈가 말하는 '유기적 재현') 일자에 포섭되지 않는 다자에는 바깥이 포함된다. 바깥은 통약 불가능한 불연속성을 함축한다. 앞으로 우리는 플라톤의 구분은 내부화를 거부하는 구분이라는 것, 그가 드러내는 차이는 동일성 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에 관련해 "손님의 고장에서"의 의견을 물었다. 대화는 의견들/견해들의 집합을 함축한다. 소크라테스는 엘레아의 견해를 물음으로써 아테네의 테두리를 넘어 논의의 지평을 확보하고자 한다. 손님은 내부화를 전제하지 않는 세 부류의 구분을 이야기한다. 이 대목은 대화편 전체의 논의 구도가 잡히는 부분이다. 엘레아의 손님은 이제 플라톤이 이 대화편에서 일차적으로 전개하고자 한 물음을 제시한다. 즉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를 각각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테오도로스: 정말이지 마침 잘 되었네요, 소크라테스님.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오는 길에 줄곧 이야기했던 문제와 거의 같은 것이니까요. 손님께서는 아까 전에도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사실 손님은 [엘레아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공부하셨고 그 후로도 늘 마음속에서 반추해 오셨던 거예요.

www.artnstudy.com

소크라테스: 손님이시여, 부디 사양하지 마시고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한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손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혼자서 길게 펼치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묻고 답하는 방식을 더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적에 파르메니데스님이 그런 식으로 제게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손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야 문답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소크라테스님. 없다면 할 수 없이 혼자서 말해야겠지만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러시다면 누구하고 문답하시겠습니까? 다들 좋으신 분들이니까 말입니다. 혹시 제가 추천해도 좋다면 여기 이 젊은 테아이테토스가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손님: 소크라테스님, 이렇게 초면인데 당연히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좋겠죠. 제가 혼자서 마치 웅변이나 하는 듯이 길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예(禮)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상당히 긴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듯하네요. 선생님 말씀도 있고 하니, 제가 여러분들의 청을 물리친다면 실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선생도 좋다고 하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군가가 혼자서 길게 이야기하는 방식과 상호간에 물음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을 구분한다. 『프로타고라스』에서도 그랬듯이,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이 진리 탐구의 좀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믿는다. 이방인도 이에 동의한다. 권력형 인간은 연설하기를 좋아한다. 술자리에서조차 혼자서 좌중을 압도하길 원한다. 그런 인간과의 만남은 고역(苦役)이다. 이방인은 그런 것은 예(禮)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하의 논의 전체는 사실상 이방인의 긴 논변이다. 이방인은 그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테아이테토스와 이방인의 대화에서 드라마적 요소는 최소화된다.

▶ 분할의 방법

손님: 좋소이다, 그건 그대에게 맡기리다. 하지만 우리 둘이서 해야 할 일도 있소. 소피스트를 찾아내서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 말이오. 우리 서로가 '소피스트'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을 뿐, 이 존재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하는 바가 없으니 말이오이다. 어떤 탐구를 하든 명확한 정의(定義) 없이 대상의 이름만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정의해 주는 이유들/근거들에 입각해 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이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이 족속은 포착하기가 참 어려운 족속입니다그려! 바로 소피스트 말이오.

www.artnstudy.com